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벼농사

❑ 낟알털기(탈곡)

○ 낟알털기 마감단계 (로동신문 11.14)

· 신의주시의 농촌부문에서 낟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시당위원회에서는 낟알털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해당부문 일군협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모든 일군들이 협동농장 작업반에 내려가 낟알털기를 적극 도와주도록 함.

·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모든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낟알털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함. 시에서는 공장, 기업소에 륜전기재를 동원하여 협동농장의 탈곡장에 벼단을 집중수송해주도록 하는 한편 전력보장대책도 세워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함.

· 련상, 석하, 락원, 토성협동농장 및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도 낟알털기를 빠르게 실시하여 90% 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이룸.

❑ 농사차비

○ 빈틈없이 계획하고 실천하자 (로동신문 11.18)

· 한해 농사결속과 다음해 농사차비가 겹치는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 농사차비를 잘해야 다음해 영농공정을 적기에 보장하고 알곡생산을 늘릴수 있음.

· 농사에서 기본은 종자임. 논벼, 강냉이, 콩 등 알곡작물의 종자소요량과 확보상황을 품종별로 따져보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함. 종자고르기와 보관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함.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여 질좋은 거름도 많이 생산해야 함. 올해농사에서 덕을 본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염 등 효능 높은 유기질복합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가을갈이 계획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 추진해야 함. 모판자리, 두벌농사적지, 붉은 땅부터 시작하여 땅이 얼기 전에 논밭을 갈아엎어야 함.

· 모판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땅이 얼기 전에 모판만들기를 하여 모판에 덮을 흙을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함.

· 겨울철 농기계수리와 중소농기구 확보 및 생산을 추진해야 함. 또한 흙깔이, 냉습지 개량 등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며 양수기수리와 관개구조물보수, 제방공사와 수로청소 등 다음해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2. 감자농사

☐ 감자농사

○ 감자종자 생산과 준비 (로동신문 11.26)

· 지금은 모판만들기를 해야 할 시기임. 이른봄 밀식모판재배에 의한 감자종자생산에서 모판준비는 더욱 중요함.

· 이른봄 밀식모판재배에 의한 감자종자생산은 평지대의 감자종자생산에서 매우 우월한 방법임. 이 방법으로 감자종자를 생산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음.

· 우선 감자종자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감자종자생산량도 훨씬 늘릴수 있음. 그러므로 평지대의 모든 농장, 작업반에서는 이른봄 밀식모판재배에 의한 감자종자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당면하여 11월 말까지 모판만들기를 끝내야 함. 모판을 가을에 준비하지 못하면 다음해 이른 봄에 땅이 녹지 않아 종자심기를 적기에 보장할 수 없고 감자종자수확을 5월 하순 전에 끝낼 수 없음.

· 이른봄 밀식모판재배할 감자종자는 다음해 1월 말에 꺼내어 싹틔울수 있도록 보관관리를 잘 해야 함.

3. 축 산

☐ 축산동향

○ 비알곡먹이로 더 많은 집짐승을 (로동신문 11.9)

· 희천시 송지협동농장 제3작업반은 농사는 물론 축산도 잘하고 있음. 주목되는 것은 집짐승기르기에 비알곡먹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임.

· 농장은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대적 특성으로 인해 유기질거름원천을 많이 찾아낼 수 없었음. 이런 조건에서 유기질거름생산을 늘릴수 있는 방도를 축산에서 찾았음.

· 작업반에서는 비육분조에 2층짜리 집짐승우리를 건설해놓고 풀, 낟알짚, 알곡 부산물 등을 최대한 효과있게 이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음.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 몇해전부터 토착미생물에 의한 먹이해결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함.

· 이를 위해 올강냉이를 가을할 때부터 시작하여 각종 낟알짚과 알곡부산물, 풀을 비육분조퇴적장에 적당한 높이로 쌓아놓고 미생물처리를 함. 여기에 물을 뿌려주어 수

분을 보장함. 이런 식으로 여러층 쌓아놓은 다음 며칠 지나서 퇴적장에 돼지를 놓아기르자 돼지먹이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됨.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6개월 간 수십마리의 돼지를 길러내면서 질좋은 거름을 생산함.

○ 강원땅에 꾸려지게 될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 (로동신문 11.11)

· 강원도의 세포, 평강, 이천지구가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됨. 방대한 면적의 세포등판을 포함한 세포, 평강, 이천지구에 새로 조성되는 풀판은 수만 정보에 달함.

·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풀판을 조성하여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곳 지구 인민의 생활이 향상될 것임. 새로 형성되는 무연한 풀판에서는 소,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집짐승, 오리, 게사니 등 가금류를 마음껏 방목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무와 뚝감자, 사탕무우밭이 조성되고 수백㎡ 바람막이숲과 10개의 저류지가 생겨남. 수많은 집짐승우리와 20여 동의 축산물가공기지, 1,000여 세대의 살림집도 동시에 세워짐.

4. 산림

❑ 산림

○ 철길 주변에 더 많은 나무를 (로동신문 11.21)

· 개성시 일군, 근로자들이 철길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이 우거지게 하고 있음.

· 시에서는 철길주변을 수림화 할 목표를 세우고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지대적 특성과 토양조건에 맞게 창성이깔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나무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더 많이 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산림부문의 일군, 기술자들은 수종별 나무그루수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나무모생산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 그리하여 계획보다 훨씬 많은 수종의 나무를 키우게 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철길 주변에는 숲이 무성해지고 있음.

○ 나무종자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11.22)

· 당의 국토건설구상에 따라 군일군들이 산림조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나무종자를 마련할 목표를 세움.

· 허천군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종자채취와 관련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움. 이에 기초하여 나무종자 채취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또한 군에서는 나무종자를 마련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단위를 적극 내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성과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음. 그 결과 땔나무림 조성에 필요한

아카시아나무와 일터와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데 좋은 은행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종자가 충분히 마련됨.

❑ 나무모 생산

○ 나무모 야외재배장 건설 힘있게 추진 (로동신문 11.2)

· 각지 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 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야외재배장 건설이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야외재배장 건설이 70% 계선에 들어섬으로써 나무모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전망이 마련됨.

·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시, 군 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모 야외재배장 건설이 힘있게 진행되고 있음. 현지에 내려간 해당 부문 일군들은 야외재배장적지를 바로 정하고 해가림발 설치를 합리적으로 하며 나무모영양단지 생산을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음.

· 평원군, 신양군산림경영소에서도 나무모생산을 공업화하여 온 나라의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우거지게할 높은 결의로 분발해 해가림발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치하는 데 힘을 넣고 있음.

❑ 통나무 생산

○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 (로동신문 11.6)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통나무생산이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배 이상의 산지통나무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둠.

· 임업성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각지 림산,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현행 생산을 빠르게 하면서 순환구역, 채벌구역에 따르는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

· 풍서임산사업소와 연암, 백암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이미 닦아놓은 길을 잘 이용하여 베어놓은 통나무를 지체없이 운반함으로써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장진임산사업소와 신흥, 검덕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나무베기를 앞세우면서 륜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여 맡겨진 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임업관리국과 강원도임업관리국 아래 여러 임산, 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설비관리를 추지하고 앞선 나무베기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증산투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음.

5. 기타 작물

❑ 과수

○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생산의 공업화 실현 (로동신문 11.11)

· 지난 9일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된 수십만 그루의 키낮은사과 나무접그루를 북청군의 과수농장에 보냄.

·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생산의 공업화를 위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 식물조직배양기지와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 생산을 위한 순화온실을 갖춘 현대적인 온실을 세움. 지난 2월에는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의 공업적인 생산을 위하여 넓은 면적의 과수묘목시험장도 세움.

· 이번에 북청군으로 나간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는 생물공학분원 식물조직배양연구소에서 조직배양한 모를 온실에서 순화시켜 지난 여름에 과수묘목시험장에 내다심은 것으로서 키가 50cm~1m 정도 되게 자란 접그루임.

·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됨으로써 첨단생물공학기술에 기초하여 나라의 사과재배부문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됨.

○ 과일가공기지 새로 건설 (로동신문 11.21)

· 룡전과수농장에 과일가공기지가 새로 건설됨. 연간 많은 과일을 가공할 수 있는 이 가공기지에서는 과일즙과 과일술을 비롯한 과일가공품이 생산되게 됨.

· 과일가공기지 건설을 위해 근로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공기지를 건설함.

· 지난 11월 초 첫 과일즙이 생산됨. 가공기지에서 생산된 과일즙은 맛이 독특하고 향기로워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냄.

· 농장의 일군, 기술자, 근로자들은 이룩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과일가공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가짓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남새

○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 본격적으로 진행 (로동신문 11.9)

· 자강도에서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계시 공인지구에 한 해에 수백 톤의 남새를 생산하는 태양열 남새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홍주지구의 태양열 남새온실을 개건보수하며 도급기관과 공장, 기업소에서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태양열 남새온실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강계시 공인지구의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은 적극 추진되고 있음. 노동력을 통해 짧

은 기간에 2만 여 ㎥의 토량을 처리하고 10여개 호동의 태양열 남새온실 기초공사를 실시함.

· 도당책임일군들은 도 일군들이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장에 자주 나가 건설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음.

· 지휘부에서는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좋은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온실건설을 앞당겨 끝내고 씨붙임을 할 수 있게 갖가지 남새종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남새온실 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로동신문 11.22)

· 평안북도에서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 당의 뜻에 따라 신의주시의 선상지구에 태양열남새온실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음.

· 현장지휘부에서는 시멘트와 모래를 비롯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기관, 기업소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온실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고 있음.

· 황해북도에서는 남새온실 건설을 완공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도에서는 설계를 하고 온실적지를 바로 정한데 맞게 건설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자재보장과 노동력조직사업을 하고 있음.

❑ 유채

○ 많은 면적에 유채를 심었다 (로동신문 11.12)

· 강원도에서 유채를 많이 심어 먹는기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하에 도에서는 유채농사를 잘하여 먹는기름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는 안변군 비산협동농장과 사평협동농장의 경험을 모든 단위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올해 가을철에도 도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많은 면적에 유채를 제철에 심음.

·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에서는 최근년간 유채를 많이 심어 해마다 유채씨로 생산한 먹는기름을 농장세대에 공급해주고 있음. 농장에서는 유채씨뿌리기 날짜를 바로 정하고 씨솎음을 비롯한 유채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문천시 룡정협동농장과 통천군 금란, 구읍협동농장, 법동군 로탄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여러 협동농장과 기관, 기업소에서도 유채농사를 잘하여 먹는 기름문제를 풀 목표 밑에 많은 면적에 가을유채를 질적으로 심었음.

6. 기타 보도 동향

☐ 현지지도

○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지구 료해 (로동신문 11.10)

· 최영림내각총리는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지구의 광활한 풀판을 개간하여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준비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함.

· 세포, 평강, 이천지구에 수만 정보에 달하는 대규모 풀판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꾸리면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됨.

· 총리는 먼저 세포등판의 일부 지역을 개간한 인민군대의 한 부업농장포전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생산한 남새작황을 파악함. 이어 세포등판의 성산지구에서 세포군의 풀판개간면적과 토질상태 등을 알아봄.

· 현지에서 당과 국가, 군대책임일군 간 협의회가 진행됨. 협의회에서는 세포, 평강, 이천지구의 지역별 풀판개간 및 축산기지건설 목표, 개간과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 설비보장 문제 등이 토의됨.